

글로벌리포트/신흥시장의 중심 '인도'

# 글로벌 시장서 '성공' 여부 가능 잣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인도는 중국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손꼽히며 '친디아'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삼성전자 이현봉 사장은 지난 10월 열린 포춘포럼에서

"인도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2005년 9.0%, 2006년 9.4%를 기록했다.

인도국가응용경제연구소에서는 올 경제성장률을 8.5%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인도의 국가 전체 GDP는 향후 1~2 년내 1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는 인도가 향후 10년간 연 10%이상의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인도 수출은 전년보다 20.3% 증가한 55억 2327만달러다. 제10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07년의 경우도 1월 ~ 10월까지 10개월간 53억901만달러를 수출해 전년동기대비 13.8%가 증가해 11대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의 현지 매출이 매년 20~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휴대폰을 비롯한 무선통신기기는 지난 몇 년간 인도수출을 이끌어왔지만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이 줄고 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현재 FTA보다 더 포괄적 규모의 경제협력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9차 협상을 열었다. 내년 4월경 서울에서 10차 협상이 예정되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07년 인도 경제성장률 8.5% 기록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3월 연간 100만대 생산 규모의 휴대폰 생산 공장을 뉴델리 근방 구르가온에 1500만달러를 투자해 준공했다.

최근 첸나이 지역에 컬러TV 제2공장을 완공했다. 향후 삼성전자는 4년에 걸쳐 첸나이 지역의 Sriperumbudul 신설공장에 1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5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도 중서부의 뿌네(Pune) 지역에 제2공장을 건설해 컬러TV 냉장고 휴대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기업들은 단독법인설립, 합작법인설립, 기술제휴,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단독법인설립이 주요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 제1의 투자유치 산업인 전자산업(소프트웨어 포함)은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2배 가까운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노키아 모토롤라 삼성전자 등이 인도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 통신서비스 보급률 세계 '최저'

인도정부는 통신산업을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산업인 동시에 현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도약에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무선 전화 가입자 수는 2007년 10월말 현재 2만1300만명으로 전년대비 42% 성장했다. 반면 유선 전화 가입자 수는 2005년 4884만명에서 2006년 4030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통신국(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인터넷 가입자 수도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2006년 3월말에 각각 690만과 130만에서 2006년 12월말에는 각각 860만과 200만으로 늘어났다.

인도 통신망은 규모 면에서 세계 10대국으로, 2005년까지 390억달러, 2010년까지 690억달러로 추산되는 투자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는 1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프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보급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현재 통신 산업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중의 하나다.



## GSM · CDMA 공존

### GSM과 CDMA

전화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는 인도의 이동전화 시장에서 기존 CDMA 사업자들이 GSM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는 장벽을 철폐했다. 이에 따라 릴라이언스사가 GSM 서비스권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CDMA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릴라이언스의 CDMA 가입자 수가 이미 3000만명을 넘어섰으며, 타타사의 가입자수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인도의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사업도 향후 유망한 협력사업이 될 전망이다. 인도정부는 IT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취약한 IT 인프라를 꼽고 있으며 통신망의 현대화와 더불어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선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광활한 인도의 지리적 여건상 이외에도 향후 무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의 IT산업은 지난 10여년 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고성장을 거듭하며 인도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부상했다.

NASSCOM(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는 인도 IT-ITES 산업이 현재 310억

달러의 수출에서 2010년까지 두 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 글로벌 R&D 센터 속속 설립

R&D 센터들에서 새로운 글로벌 투자의 25%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오라클 인텔 어도비 STM, SAP 등등 인도 R&D 센터들은 규모는 미국이나 유럽 다음으로 크다. 삼성전자와 인도도 인도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와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무 자동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PC판매량은 전년비 31.2%증가한 365만 대를 기록한 바 있다. ☐

인도는 전 세계 글로벌 IT기업들의 연구와 개발 허브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